

2011. 9. 19 제271호

#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세계도시동향

2011. 9. 19 제271호

## 문화·디자인

1. 건물·가로 공사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지켜주는 보호시설물 설치 (뉴욕)
2. 문화에이전트를 학교에 배치해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 추진 (베를린)

## 건강·복지

3. 저소득층의 0~3세 영·유아 대상 복지프로그램 시행 (영국 웨일즈)
  4. 유치원생과 노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대통합형 마을놀이터 개소 (베를린)
- (토막기사) 맨해튼의 주민 절반가량이 독신가구 (뉴욕)

## 행정·재정

5. 공공예산 삭감으로 청소년센터 운영을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영국 글로스터셔주)

---

## 방재·안전

6. 재난·재해 발생 시 시민이 직접 피해상황을 작성해 올릴 수 있는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뉴욕)
7.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침 발표 (뉴욕)

## 도시환경

8. 소형 전기자동차를 이용해 도심 내 화물 운송 (네덜란드 위트레흐트市)
9. 3개 도시가 음식물쓰레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 공동 추진 (영국 웨일즈)  
(토막기사) PCB(폴리염화바이페닐)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제도 시행 (도쿄)

## 도시교통

10. 자전거 통행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11. 자전거 출퇴근을 권장하기 위한 공모전 실시 (베를린)

## 도시계획·주택

- (토막기사) 2050년 수도권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비전 전시회 개최 (도쿄)
-

## 문화 · 디자인

### 1. 건물·가로 공사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지켜주는 보호시설물 설치 (뉴욕)

○ 뉴욕市에서는 매년 6000개 이상의 보행로가 건물·도로시설물 공사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며, 이를 직선거리로 계산하면 300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사는 대부분 1년 가까이 진행되지만 도시 미관 증진이나 보행자 보호 대책은 미흡해 市에서는 보행자 보호시설물 ‘urbanSHED’를 설치하기로 하고 공모전을 통해 디자인을 선정함.

- 국제공모전에는 28개국 164개 팀이 참가함. 市에서 최종 선정해 발표한 당선작은 한국인 건축가와 엔지니어, 디자이너로 구성된 팀에서 만든 ‘Urban Umbrella’란 작품임. 당선된 구조물 디자인은 조만간 시민의 일상에서 매일 접할 수 있게 되고 뉴욕 가로공간 시설물의 새로운 디자인 표준이 될 전망이다.





【선정된 보행자 보호시설물 디자인안】

- 市는 도시디자인에 대해 ‘디자인이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라 설명하고, Urban Umbrella는 ① 보행공간에 자연광이 비치도록 하고, ② 상업·업무용 건물 공사로 인한 영향을 줄여 사업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감소시키며, ③ 공사 중인 구조물이 보행자에게 띄지 않도록 가리고, ④ 보행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보행자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c789a0/index.jsp?pagel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www.nyc.gov%2Fhtml%2Fom%2Fhtml%2F2010a%2Fpr032-10.html&cc=unused1978&rc=1194&ndi=1](http://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c789a0/index.jsp?pagel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www.nyc.gov%2Fhtml%2Fom%2Fhtml%2F2010a%2Fpr032-10.html&cc=unused1978&rc=1194&ndi=1))

([www.nyc.gov/html/dob/html/community\\_partnerships/urbanSHED\\_Competition.shtml](http://www.nyc.gov/html/dob/html/community_partnerships/urbanSHED_Competition.shtml))

## 2. 문화에이전트를 학교에 배치해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 추진 (베를린)

- 베를린市 교육청은 2011년 8월 24일 문화에이전시 Forum K&B GmbH, 메르카토르 재단, 연방 문화재단, 연방 청소년재단과 함께 ‘창조적인 학교를 위한 문화에이전트’라는 교육사업을 시행함. 市 교육청은 우선 시범적으로 30개 학교에 10명의 문화에이전트를 4년 계약으로 배치함.
  - 문화에이전트는 예술 분야 종사자이면서 동시에 학생 지도 및 상담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선발함. 이들은 학교에서 교사, 부모와 협력해 학생들에게 포괄적이면서도 다양한 문화예술 강의를 제공하고, 학교와 문화예술기관 간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됨.
    - 市 교육청은 2011년 5월 30개의 시범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함. 세컨더리 스쿨(Sekundarschule: 실업계 성격을 강화한 통합 중고교)이 21개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밖에 5개 초등학교, 3개 김나지움(인문계 중고교), 1개의 특수직업고교 등이 포함됨.
    - 市는 이번 사업을 위해 문화에이전트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이들의 전문 직업생활을 위한 교육비도 지원함. 4년간의 시범사업에서 市는 약 120만 유로(약 18억 4000만 원)를 부담함.
  -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예술에 대한 호기심을 일깨우고 예술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예술적 감성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 중요함. 市와 市 교육청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에서부터 예술과 만나고 실제로 작품을 만들어보는 등 예술적 감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함.

- 市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회 부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학교가 미술관, 콘서트홀, 극장, 도서관, 문화센터 등 문화예술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해 학생의 문화예술 접촉 기회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계획임.
- 또한 문화예술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교와 문화예술기관 간 공동 프로젝트를 학생의 수준에 맞게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학교에 배치되는 문화에이전트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게 됨.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미래의 문화예술 수요자를 확보하는 계기가 됨.

([www.berlin.de/sen/bwf/presse/archiv/20110824.1610.356073.html](http://www.berlin.de/sen/bwf/presse/archiv/20110824.1610.356073.html))

## 건 강 · 복 지

### 3. 저소득층의 0~3세 영·유아 대상 복지프로그램 시행 (영국 웨일즈)

- 영국 웨일즈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난 0~3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Flying Start'란 복지사업을 시행함. 국제적으로 검증된 영·유아 보살핌 사업인 Flying Start를 웨일즈 가정에 제공해 가난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생기지 않도록 함.



【Flying Start 사업 상징  
(영어와 웨일즈어인 켈트어로 작성)】

- 바깥출입을 할 수 있는 2~3세 유아의 경우 반일제 어린이집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유아의 건강을 관리하며, 부모에게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에게는 언어발달 및 놀이교육 기회를 제공함.
- 영·유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복지사업을 펼칠 경우 단기적인 혜택뿐 아니라 장기적인 혜택도 큰 것으로 나타남. 장기적인 혜택으로는 ① 장애 등의 이유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조

기에 발견해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고, ② 보호시설로 유입되는 어린이 수를 줄일 수 있으며, ③ 불량 청소년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④ 향후 미숙련 노동자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⑤ 마약 및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줄일 수 있고, ⑥ 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들 수 있음.

([new.wales.gov.uk/newsroom/childrenandyoungpeople/2011/110824flyingstart/?lang=en](http://new.wales.gov.uk/newsroom/childrenandyoungpeople/2011/110824flyingstart/?lang=en))

([new.wales.gov.uk/topics/childrenyoungpeople/parenting/help/flyingstart/?lang=en](http://new.wales.gov.uk/topics/childrenyoungpeople/parenting/help/flyingstart/?lang=en))

#### 4. 유치원생과 노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대통합형 마을 놀이터 개소 (베를린)

○ 베를린市 노이퀼른區의 하이 데크 마을(High-Deck-Siedlung)은 10년 전부터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어울리는 세대공동체적인 마을 조성을 추진해오고 있음. 이 마을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린이가 함께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마을놀이터가 2011년 8월 22일 개소됨.

- 노인복지주택 단지에 새로운 유치원이 개원했을 때 노인복지주택과 유치원 사이 공터에 만남의 장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區와 주민, 공터 소유주이자 이 마을에 1900채의 주택을 소유한 주택회사가 협의를 통해 작은 공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함.

· 공원은 새로 개원한 유치원의 놀이터를 연장해 노인복지주택에 사는 노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로 결정됨. 市는 이

세대통합형 공원 조성을 위해 35만 유로(약 5억 3600만 원)를 지원하고, 놀이터 계획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노인, 학부모,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완공됨.

- 새로운 마을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 외에 성인 운동시설, 벤치가 있는 휴식공간, 작은 꽃밭 등으로 구성됨. 공원 옆에는 마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테라스도 마련됨.
- 세대통합형 놀이터를 통해 할머니, 할아버지, 유치원생이 만나 서로 이해하고 보살펴주는 마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됨.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108/nachricht4453.html](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108/nachricht4453.html))

#### 맨해튼의 주민 절반가량이 독신가구 (뉴욕)

- 2010년의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 맨해튼의 독신가구 비율이 46.3%인 것으로 나타남. 이 결과는 2000년 48%에서 소폭 감소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보다 높은 독신가구 비율을 보여줌. 미국 전체의 독신가구 비율은 27%임. 한편 학령기 유아·청소년의 비율은 최근 10여 년간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독신가구 비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를 살펴보면, ① 월 임대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특성상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한 집에서 두세 명씩 함께 생활하는 경향이 늘고 있고, ②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치안과 교육 환경으로 결혼 이후에도 市 외곽으로 떠나지 않고 맨해튼에 그대로 남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임.
- 전문가들은 맨해튼의 인구구성 변화의 양상이 과도기적이라고 보면서 ① 독신 가구에 최적화된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필요하고, ② 학령기 유아·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립학교 시설이나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lifestyle.inquirer.net/12573/solo-living-drops-in-manhattan-rises-elsewhere](http://lifestyle.inquirer.net/12573/solo-living-drops-in-manhattan-rises-elsewhere))

([www.google.com/hostednews/ap/article/ALeqM5gXL2W4egaBhnp00O8jx2gXRqPVhQ?docId=cb1cb3513c8d4d02a3b98c37f13ac7cf](http://www.google.com/hostednews/ap/article/ALeqM5gXL2W4egaBhnp00O8jx2gXRqPVhQ?docId=cb1cb3513c8d4d02a3b98c37f13ac7cf))

## 행 정 · 재 정

### 5. 공공예산 삭감으로 청소년센터 운영을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영국 글로스터셔주)

- 영국에서는 경기불황으로 공공부문 재정이 악화되자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음. 이에 지역에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갈 곳 잃은 지역복지센터(청소년센터, 노인복지관, 도서관 등)를 맡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2011년 2월 글로스터셔주가 22개 청소년센터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지역사회단체에 운영권을 넘기거나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2011년 5월까지 7개 센터의 운영권이 비영리 민간단체로 넘어갔으며, 현재

3개 센터는 심사가 진행 중임. 위탁운영단체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은 해당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밝히고 있는 '사업계획'임.

- 청소년센터 외에도 폐쇄 위기에 처한 지역도서관 두 곳을 지역사회 단체가 운영하겠다고 지원했으나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임.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지역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될 수도 있음.
-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공공재정 악화로 공무원 인원 감축 및 예산 삭감이 늘고 있는 추세임. 영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사회복지 행정이 위축됨에 따라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점차 격화되고 있음.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예산 압박을 줄이고 지역에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행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큰 지역사회(Big Community) 만들기'란 사업을 추진함. 지역복지단체를 맡아 운영하게 되는 지역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지방정부 예산 삭감으로 공공도서관이 문을 닫게 되자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

- 중앙정부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던 건물이나 서비스를 비영리 민간단체가 맡을 경우 1개 건물당 2500파운드(약 44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임대건물인 경우 임대료,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 경우 건물 매매수익의 50%를 지원함. 공공도서관의 경우 1개 도서관에 매년 1만 파운드(약 176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함.

- 또한 지역복지센터의 건물 수리를 위해 건물당 5000파운드(약 870만 원)를 지원하고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에 5만 파운드(약 8700만 원)를 지원함. 지역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구축도 지원하며, 전문가 초청 워크숍도 진행함.
- 해당 비영리 민간단체는 미리 수립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지역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되고 장기 임대, 단기 임대로 지불 등의 방법으로 대지·건물을 이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도 있음.
  - 빗더미에 앉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위탁운영을 통해 예산 부담을 줄이고, 지역복지센터 임대 또는 매각을 통해 재정악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또한 그동안 재정 악화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지역복지센터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지역 민간단체 Comm이 버밍햄市로부터 청소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후 자원봉사자와 함께 제작한 벽화】

(www.bbc.co.uk/news/uk-england-gloucestershire-14754092)

(www.thisisgloucestershire.co.uk/Good-news-Gloucestershire-youth-cent  
res/story-13246377-detail/story.html)

(www.guardian.co.uk/voluntary-sector-network/2011/may/25/making-co  
mmunity-asset-transfer-work)

## 방 재 · 안 전

### 6. 재난·재해 발생 시 시민이 직접 피해상황을 작성해 올릴 수 있는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뉴욕)

○ 뉴욕시는 최근에 발생한 허리케인 ‘아이린’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이나 사업자가 주요 피해상황을 직접 도시정보시스템을 통해 알리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시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음.

- 시는 이번 시스템을 활용해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하고, 현황 파악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인력도 줄일 수 있게 됨. 특히 허리케인 ‘아이린’이 폭우와 강풍을 동반해 가로수와 거주지 정원수, 공원에 심은 나무 등이 손상된 경우가 많아 시에서는 나무 및 조경 피해를 복구하거나 복구가 힘든 가로수를 제거해주는 프로그램도 시행 중임.

· 시민이 재난·재해 현황 리포팅 웹사이트 등에서 피해현황을 작성해 올리면 시는 쓰러지거나 부러진 나무를 제거하거나 도심 또는

공원에 있는 도로를 봉쇄하거나 보행로를 차단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市는 공공부지가 아닌 사유지에서 손상을 입은 수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대신 사유지 소유주의 편의를 위해 조경 복구사업을 맡길 수 있는 조경업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유지 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함.
- 재난·재해 현황 신고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전화 311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음. 311 통합 민원전화와 웹사이트에서는 이외에도 대중 교통 운행 중단 및 재개, 주요 교차로의 폐쇄 및 재개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함.

The image shows a web browser window titled "NYC Report Storm Damage". The main content area is a form with the following fields and options:

- Facility:** A dropdown menu.
- Damage Type:** Radio buttons for Wind, Water, Fire, Structural, and Other.
- Damage Type - Other:** A text input field.
- Damage Severity:** Radio buttons for Destroyed, Major, and Minor.
- Address:** A text input field.
- Borough:** A dropdown menu.
- ZIP Code:** A text input field.

Below the form, there is a CAPTCHA challenge: "Please enter the letters you see in the graphic below (required): (letters are not case-sensitive)". The graphic shows the letters Z O N Z R. There is a "Get new image" button and a "What is this?" link.

On the right side of the form, there is a blue sidebar with the following text:

**Notify NYC**  
**Mandatory Evacuations Lifted - Zone A and the Rockaways (NYC)**  
Alert issued 8/28/11 at 3:15 PM. The City has lifted the evacuation order for Zone A and the Rockaway peninsula.

【市 홈페이지에 구축된 재난·재해 현황 리포팅 시스템】

([www.nyc.gov/apps/311/allServices.htm?requestType=topService&serviceName=Hurricane+Damage+Report](http://www.nyc.gov/apps/311/allServices.htm?requestType=topService&serviceName=Hurricane+Damage+Report))

([www.nyc.gov/apps/311/allServices.htm?requestType=relatedService&ser](http://www.nyc.gov/apps/311/allServices.htm?requestType=relatedService&ser))

viceName=Fallen+Tree+or+Branch+Removal+Request&intentId=E9E66310  
-8137-11DE-8E9F-96DAE110FEB8)  
(gis.nyc.gov/parks/forms/)  
(www.nyc.gov/html/oem/html/nycsevereweather/damage\_form.shtml)

## 7.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침 발표 (뉴욕)

- 뉴욕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민 스스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름철 태풍이나 홍수, 허리케인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침을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먹는 물 관련 대응방안: 市 환경보호국과 건강 및 정신위생국에서는 수돗물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주의가 필요할 경우 시민에게 공지함. 수돗물이 맑게 나오지 않는 경우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30초 이상 수돗물을 흘려보내고, 사업장에서는 5분 이상 필터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함. 먹는 물과 관련된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는 市 홈페이지를 참고함.
  - 음식물 안전 관련 대응방안: 정전이나 고온다습한 날씨, 수해로 인해 음식물이 물에 접촉된 경우 포장된 음식을 포함해 모든 음식물을 폐기해야 함. 통조림과 같이 밀봉된 음식의 경우 포장에 손상이 있을 경우 폐기해야 함.
    - 정전이 되었을 경우 가능한 한 냉장·냉동고의 문은 열지 않아야 하고 냉장실은 4시간, 냉동실은 48시간만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음.

달걀, 육류, 어패류, 조리한 후 남은 음식이 상온에서 2시간 이상 지났을 경우 반드시 폐기함.

- 수해복구 작업: 실내 바닥재인 카펫의 경우 홍수 피해 후 올바른 복구 작업과 세척은 전문가에게 의뢰함. 홍수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하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지역과 건물의 소독 및 건조가 중요하고, 건물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는 빠른 복구가 중요함. 침수 지점의 수심이 깊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한 복구가 이루어져야 함.
- 하수가 유입된 침수 피해에 대처하는 방안: 하수는 수인성 질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전염병과 피부병 등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어린이와 성인, 애완동물은 소독을 완료한 장소로 대피해야 함. 포장되어 있는 음식물도 반드시 폐기해야 함.
  - 보안경, 방수 장화나 의복을 착용하고 복구작업에 참여해야 함. 목재 건물이나 가구는 세제를 이용해 청소하고 소독 성분이 들어 있는 표백제나 소독약을 사용하되 표백제를 사용하는 경우 암모니아계 세제와는 절대로 혼합해 사용하지 않도록 함. 의류나 섬유제품도 반드시 세제를 이용해 세척하되 가죽제품은 소독이 어려우므로 폐기함.
- 부식도 방지 방안: 부식도는 수해가 발생한 후 여러 날에 걸쳐 발생함. 실내에 남아 있는 경우 알레르기, 천식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수해지역의 신속한 건조가 중요함.
-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법: 건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실내에서 가솔린,

석탄, 캠핑용 그릴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충분히 환기가 된 환경이 아니면 실내에서는 차량 시동을 걸지 않도록 함.

([www.nyc.gov/html/doh/html/home/home.shtml](http://www.nyc.gov/html/doh/html/home/home.shtml))

([www.nyc.gov/html/doh/html/pr2011/pr021-11.shtml](http://www.nyc.gov/html/doh/html/pr2011/pr021-11.shtml))

## 도 시 환 경

### 8. 소형 전기자동차를 이용해 도심 내 화물 운송 (네덜란드 위트레흐트市)

○ 네덜란드 위트레흐트(Utrecht)市는 그동안 도심 내로 화물을 운송해오던 대형화물차를 대신해 태양열로 운행되는 소형화물차를 공동 운행함으로써 도심 내 좁은 골목에 위치한 사업체에도 화물을 쉽게 배달할 수 있도록 함. 기존의 대형트럭은 소음, 먼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도심 환경을 해쳐왔기 때문에 市는 도심으로 유입되는 모든 화물은 ‘Cargohopper’라는 전기자동차를 통해 배송하는 것으로 도심 내 사업체와 합의함.

- Cargohopper는 태양열을 이용해 운행되며 차량 폭이 1.25m에 불과해 좁은 골목에서도 효율적으로 배송이 가능함. 최고속도는 시속 20km 정도이며 하루 60km까지 운행할 수 있음. 차량 1대당 연간 디젤 2만 리터를 절약하고 트럭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대폭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위트레흐트市的 도심 내 화물 운송을 담당하게 된 소형화물차 Cargohopper】

([www.treehugger.com/files/2011/09/how-tiny-trucks-can-save-american-cities.php#ch04](http://www.treehugger.com/files/2011/09/how-tiny-trucks-can-save-american-cities.php#ch04))

## 9. 3개 도시가 음식물쓰레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 공동 추진 (영국 웨일즈)

- 영국 웨일즈 북부에 위치한 3개 도시가 연합해 음식물쓰레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함. 세인트 아새프 지역에 위치한 플린트셔(Flintshire), 콘위(Conwy), 덴비셔(Denbighshire) 등 3개 도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2만여 톤에 달함. 음식물쓰레기를 썩혀서 만든 퇴비를 이용해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는 덴비셔市에 설치될 예정임.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750만 파운드(약 132억 원)에 달함.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면 2013년부터 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임.
- 3개 소도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음식물쓰레기를 적절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들 세 도시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발전소 사업을 추진할 전문기업을 물색해왔으며, 최근 2년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총 15년간 발전소를

건설해 운영할 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함.

- 랭커스터 지역에 본사를 둔 유기성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인 TEG Environmental社와 발전 전문기업 Alkane Energy社가 공동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며, 발전소 건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웨일즈정부로부터 지원받음. 웨일즈정부는 140만 파운드(약 24억 6500만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함.
  - 세 도시는 인근 도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임. 발전소를 운영하게 되면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 충당하고 남은 전력은 인근 2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지역 농장을 위해 1만 9000톤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웨일즈는 기초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해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지원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재훈련하는 사업도 시행하여 현재까지 총 200명의 유기폐기물 처리 전문가를 배출함.
-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쓰레기 처리업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퇴비 생산을 통해 지역 농가를 후원하는 등 지역 경제 살리기와 연계한 녹색 성장을 추진한다는 점이 돋보임.

([new.wales.gov.uk/newsroom/businessandeconomy/2011/110830foodtech/?lang=en](http://new.wales.gov.uk/newsroom/businessandeconomy/2011/110830foodtech/?lang=en))

([www.bbc.co.uk/news/uk-wales-north-east-wales-14734366](http://www.bbc.co.uk/news/uk-wales-north-east-wales-14734366))

([new.wales.gov.uk/topics/environmentcountryside/epq/waste\\_recycling/zerowaste/?lang=en](http://new.wales.gov.uk/topics/environmentcountryside/epq/waste_recycling/zerowaste/?lang=en))

### PCB(폴리염화바이페닐)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제도 시행 (도쿄)

- 도쿄都是 미량의 PCB(폴리염화바이페닐)에 오염된 절연유(絶緣油), 변압기 등의 전기기기를 처리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5년까지 시행함. 지원대상이 되는 폐기물은 미량의 PCB가 함유된 절연유, 미량의 PCB 절연유가 들어 있는 변압기·콘덴서 등 전기기기임.
- 미량의 PCB 폐기물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중소기업, 아파트 관리조합, 100인 이하의 의료·사회복지·학교·종교 법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기기에 서 미량의 PCB에 오염된 절연유를 뽑아내거나 미량의 PCB 폐기물을 운 반 및 처분하는 비용을 지원함. 지원 규모는 전체 경비의 절반 정도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9/201912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9/20191200.htm))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9/20191201.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9/20191201.htm))

## 도 시 교 통

### 10. 자전거 통행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 미국 샌프란시스코市는 차량 운전자가 문을 열 때 자전거 운전자에게 줄 수 있는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시범프로젝트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 중임. 자전거 통행비율이 높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차량 문을 열어 뒤따라오는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건수가 전체 사고건수 중 두 번째로 많음.
- 샌프란시스코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152cm의 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차량 문을 여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60cm 정도만 이용할 수 있

는 것으로 밝혀짐. 市가 2개 시범지역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폭을 15cm 넓게 한 뒤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각각 24%에서 10%, 41%에서 30%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샌프란시스코市の 자전거 도로(좌), 차량 문을 열 때를 고려한 자전거 도로(우)】

- 市는 주차된 차량 옆의 자전거도로에는 약 10cm 정도의 굵은 실 선을 사용하라는 ‘미국 자전거도로 디자인 가이드’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www.grist.org/biking/2011-09-01-the-dangers-of-the-door-zone](http://www.grist.org/biking/2011-09-01-the-dangers-of-the-door-zone))

([sf.streetsblog.org/2011/08/30/sfmta-tries-new-bike-lane-treatments-to-keep-cyclists-clear-of-door-zone/](http://sf.streetsblog.org/2011/08/30/sfmta-tries-new-bike-lane-treatments-to-keep-cyclists-clear-of-door-zone/))

## 11. 자전거 출퇴근을 권장하기 위한 공모전 실시 (베를린)

- 베를린에서 자전거는 도심의 도로 풍경을 특징짓는 주요소임. 베를린市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베를린에서 가장 자전거 친화적인 사장님’이라는 공모전을 시행함. 이 공모전은 연방 교통건설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일에서 가장 자전거 친화적인 사장님 찾기’ 사업을 市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함.

- 이번 공모전은 5인 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나 기관을 대상으로 직원의 자전거 출퇴근을 장려하는 아이디어를 공모함. 심사위원단은 市 도시발전국, 베를린 기업연합, 베를린 상공회의소, 베를린 기능장협회, 독일자동차협회, 독일 자전거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심사위원단은 자전거 출퇴근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 자전거 이용을 위한 기초시설 설치, 자전거 출퇴근의 동기 부여, 회사의 자전거 및 기타 서비스 제공, 자전거 이용자의 친목 도모를 지원하는 부대 서비스 등을 토대로 평가함.
  - 우수 회사로 선정되면 자전거와 자전거 부속품 등이 상품으로 수여되며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는 자전거 친화업체’라는 인증서를 받음. 또한 자전거 출퇴근 권장사례를 공공에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부여받음.
- 공모전은 자동차 대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일이 도로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며, 무엇보다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기업인에게 심어주는 데 목적이 있음. 회사로서는 직원의 건강과 삶의 의욕을 증진시키고, 자전거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회사라는 점을 홍보할 수 있어 좋은 기업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음.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108/nachricht4446.html](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108/nachricht4446.html))

## 도시계획 · 주택

### 2050년 수도권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비전 전시회 개최 (도쿄)

- 도쿄都是 2011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도쿄 2050, 12개의 도시비전 전시회’를 개최함. 제24회 세계건축회의의 주테마인 ‘DESIGN 2050’에 맞추어 건축가와 도시디자인을 전공한 수도권 12개 대학의 연구팀이 2050년 수도권의 미래상을 제시함. 세계건축회의를 계기로 전문가들이 고도성장기와는 다른 상황에 처한 도쿄의 미래비전을 도면이나 모형,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낸다는 데 이번 전시회의 의의가 있음.
- 이 전시회에서는 12개의 도쿄 미래상과 함께 ‘Le Grand Pari(s)’라고 하는 파리의 미래상도 함께 전시되어 21세기 대도시권의 새로운 이미지를 글로벌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오테마치, 마루노우치 지구의 민관협력(PPP)을 통한 마을 만들기 사업, 환경공생 사업 등을 지요다區의 전경 모형과 함께 전시함.

(<http://tokyo2050.com/>)